

구조독해의 한계와 극복방안

-승동-

1. 구조독해란?

구조독해란, 지문의 구조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읽어나가 정답을 고르는' Reading Skill입니다.

강사마다 구조독해를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다음 예시는 구조독해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조독해의 설명 예시>

일반 학원 쌤들이나 학생들은 지문을 읽을때 이른바

내용 누적 방식으로 읽는다. 다시 말해 1문장 읽고

기억하고 또 1문장 기억하고...이 방식으로 읽다가 끝까지 읽으면. "내가 뭘 읽었지"하고 내용을 기억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제도 바로 확실히 잡히지 않게 된다.

또한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이 다르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머리를 쓰게 된다. 예를 들어 빈칸추론 문장 집어넣기 문단 요약 주제찾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읽고 푼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

고로 구조독해는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여 내용을 쉽게 한번에 파악하고 주제를 잡을 뿐만 아니라 유형마다 풀이가 거의 일정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구조가 있겠지만 수능이나 텡스는 지문 길이때문에 상당히 구조가 파악하기 쉽다

언뜻 보면 대단한 Skill인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구조독해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100점을 맞았다고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구조독해를 통해 지문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독해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구조독해는 쉬운 지문에 잘 통한다.

오르비나 기타 커뮤니티에 '구조독해의 적용사례'라는 글들을 보면 8할 이상이 쉬운 지문들에 적용해놓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험생일 때, 9월 평가원 이전 교육청모의고사에서 친구들이 모 강사의 Reading Skill이 적용이 잘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9월 평가원날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자 Reading Skill을 적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지문을 독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지문 자체가 쉬우면 구조독해가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문에 구조독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맞춰야 하는 지문은 쉬운 지문도 있지만, 상위 대학에 입학하려면 변별력을 갖춘 어려운 지문도 맞춰야 합니다(물론 다른 과목으로 커버칠수도 있지만..맞추는게 좋겠죠?^^)

2) 강사들도 어려운 지문에는 구조독해를 적용하지 못한다.

인터넷에서 독해 강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Paraphrasing 과 Reading Skill
전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후자의 경우 한 두 줄만 픽픽 읽고, 접속사에 따라서 문장 자체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강사의 13 수능 27번 해설강의를 들어봤습니다.

<해설강의 일부 내용 요약>

빈칸이 Sentence. 따라서 빈칸은 주제일 것이며 빈칸 뒤가 근거. 여기부터 읽자.

읽어보니 Genetic 기반은 잘못된 것: 따라서 Genetic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나머지 선택지들은 오답.

선택지를 읽어본 뒤->부연설명만 읽고 이해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다시 읽자.

평소 구조독해로 풀이를 하시는 분이려 조금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양심적인(——;)편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구조독해 찬양론자들이나 다른 강사들의 경우는

“이 구조는 AA구조. 그러니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여기 여기만 읽으면 빈칸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해 보이는 풀이죠?

3) 실전에서 처음부터 읽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독해 옹호론자들은 실전에서 구조독해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다만 11수능때 구조독해로 덕을 봤다는 글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시험의 긴장감 때문에, 구조독해를 적용해 볼 '강'이 없어서 처음부터 지문을 독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는 구조독해로 훈련했기 때문에 편한 문장만 읽힐 것이고, 쉬운 문제는 어차저차 풀게 되지만 어려운 문제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나,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시험에서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지, 감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3. 구조독해의 극복 방안

구조독해의 극복 방안은 간단합니다: **정공법**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는 법을 훈련하고 싶다->Reading Skill이 아니라 Reading ability(독해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해석의 실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야합니다.

빠르게 정답을 맞추고 싶다->글을 빠르게 읽는 법을 훈련해야합니다. 오랜 실전연습과 정확한 해석능력을 키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것으로 문장 자체를 다 날려버리고 빠르게 정답을 고르는 방법론 및 시간 절약을 하자는 마인드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